마음의 손 자르는 원통형 단수대

(욥기 2:1~13)

10.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11.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12.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3.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손 자르는 원통형 단수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의 손 자르는 원통형 단수대'
주일 늦은 오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강릉에 찾아오신 적도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길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복음방송의 말씀을 즐겨 들으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며 설교에 십자가 생활화의 핵심 주제를 담아서 전파하고 계시는데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무술로 말하자면 무림세계에서 고수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궁금증은 이분에게서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는 결코 신앙의 고수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더서에서 선민다움의 핵심은 제1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계명을 지키면 사실 나머지 율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고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 믿어지는 대상이 신입니다.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대상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 마음의 손을 뻗어서 자꾸 붙잡게 됩니다. 마음의 손이 붙잡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것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우고 기뻐하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복음이 기본 중에 기본인 이유는 제1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스며든 죄의 성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손을 뻗어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가 원통형 단수대의 역할을 합니다.
단두대(斷頭臺)는 머리 두(頭)를 써서 참수형을 행하는 틀이라면, 단수대(斷手臺)는 손 수(手)를 써서 손을 끊는 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 편으로는 돈을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아내를 붙잡습니다. 이는 돈으로 기뻐하고 아내로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원통형 단수대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내 마음에서 뻗어 나온 손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손을 다 끊어내는 살벌한 단수대가 복음인 이유는 그렇게 잘라져야만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죄의 성향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붙잡고 기뻐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기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애달파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부자 되고 싶은 사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세상을 열망하는 교인들이 모인다면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의 손을 끊어버리는 원통형 단수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고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의 손으로 붙잡고 기뻐하려고 하므로 교회에서 십자가 생활화가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란 곧 기쁨으로 귀결되는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향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사랑인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고 돈으로 기뻐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통형 단수대로서 내 마음을 감싸며 세상을 향하려는 손을 모조리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신앙의 고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5~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무리’는 곧 신앙의 초신자들을 말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욥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죽음을 생활화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함을 생활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8~30절에서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계산을 한 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도착할 곳이 어느 곳이고, 과연 내가 그 곳에 가고 싶어 하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거되는 것을 뜻하는데도 믿으시겠습니까?
자녀의 형통을 기쁨으로 여기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에, 그래도 된다고 약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원통형 단수대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오히려 자녀를 위해 예수를 믿겠다는 엄마에게 원통형 단수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단수대를 뒤집어쓰고 자녀로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마음의 손이 끊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일반 종교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사랑해서 붙잡은 것들이 잘 되기 위한 기도를 기독교가 수용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더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즉 선민 됨이 말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막대한 재산과 열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산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재산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리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많은 자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는 명성도 있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인데 끊어버리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곧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돈이 떨어져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을 잘 번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으로 기뻐할 때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뿐입니다. 설령 자녀가 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로 기뻐할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욥은 그 순전함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욥은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지고, 명성과 체면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탄은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넘어집니다. 사탄이 욥에게 네 목숨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재산과 자

녀들의 목숨을 잃을 것인가를 물었다면, 물론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자녀의 목숨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육체에 손상을 가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지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가 특별한 이유를 갖는 이유는 재산이나 자녀와 같은 세상의 모든 기쁨과 보람을 위해서는 육체가 존재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느끼고 누리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육체가 없다면 마음과 세상과의 접촉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기 위한 통로이자 관문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육체에 손상을 가하면 욥이 변심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초신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의 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고수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아무도 하나님만을 기쁨의 근거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기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제1계명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제1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복음으로 마음의 손을 끊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시련은 신앙의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죄적 성향 때문에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마음의 손은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이 이제는 건강까지도 잃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꼴을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합니다. 아내의 말에는 아직도 마음을 하나님께만 보내느냐는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의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게 드려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과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붙잡음으로서 그 자녀와 재산과 명성이 자신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꼴이 되었으니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를 떠나 있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야 돈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야만 자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떠날 때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는 소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복음이 우리의 원통형 단수대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신앙은 시작조차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결코 신앙의 고수들이나 행할 수 있는 덕목 같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 본질이며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제1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모든 율법과 계명도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거짓말 할 수 없고 도적질 할 수 없고 이웃의 재산이나 아내를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는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바라는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있다면 이것들이 곧 제1계명을 지키지 않는 증거입니다. 제1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1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고통스러워하며 반성하는 자에게만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만 마음은 다른 것을 붙잡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습성을 괴로워할 때에 십자가는 그 습성을 잘라내는 원통형 단수대로서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육체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손까지도 원통형 단수대인 십자가를 통해 끊어져야만 합니다. 욥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마음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허락되었습니다. 욥이 당했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당하셨기에, 우리는 십자가 원통형 단수대를 쓰고 마음이 끊어져 나가면서도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세상을 붙잡은 손들이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

통형 단수대입니다. 이 원통형 단수대를 생활화함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원통형 단수대로서의 십자가 생활화는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임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